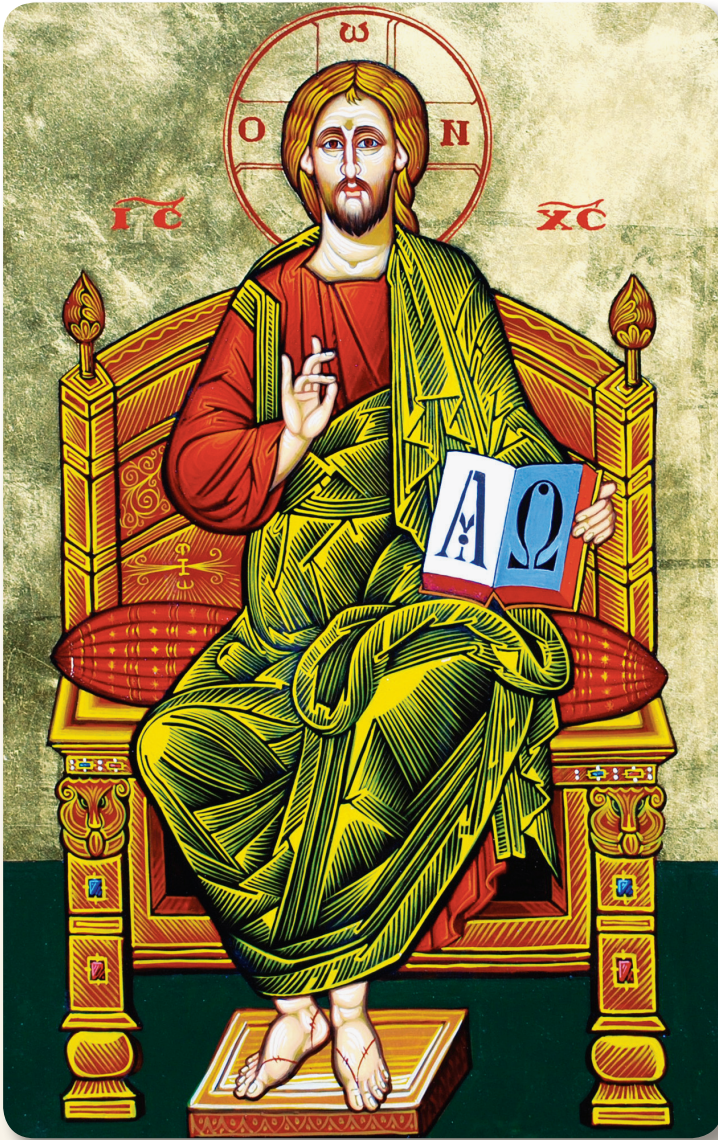


대구주보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2012.4.15.(나해) 제177호



† 금주의 성화

그리스도 왕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순명하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어 “당신 나라의 영광을 차지하셨다”(교회헌장 36). 그리스도의 왕위는 십자가에서 빛나고 있으며, 그 영광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은 “진리와 생명의 나라요,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요,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이다(그리스도왕 대축일의 감사서문송).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섬기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짐으로써이다.

이홍구(스테파노) 작
한국 가톨릭 이콘 연구소장

† 오늘의 전례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요한 20,19-31 참조)

결코 못 믿겠다던 사도 토마스는 여드레 뒤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손가락을 넣어보지도 않고 곧바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사람이 궁리해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주님을 믿는 이 은총을 받았으니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총을 받지 못했더라면, 설사 우리 눈으로 직접 본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1독서 사도 4,32-35 제2독서 1요한 5,1-6 복음 요한 20,19-31
화답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또는 ◎ 알렐루야.)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딤시다 • 4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 먼저 인사합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한인갑 베네딕토 신부 / 성미카엘성당 주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3년간 모든 것을 걸고 뒤따라 다니던 스승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잡혀간 것을. 스승은 며칠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중은 그를 십자가형으로 몰았고 총독 빌라도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스승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으며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무슨 흉악범도 아닌데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스승의 주검이나 정성껏 처리하려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스승의 주검이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싸인 채 한 집에 몰래 모여 문을 닫아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때 그들 가운데 죽었던 스승 예수님이 갑자기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눈앞에 벌어진 광경이 너무도 당혹스럽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스승은 친히 당신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내가 맞다. 너희의 스승 예수다. 나는 살아 있다.”라는 말을 그 한 동작으로 보여줍니다. 상처 입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제야 그들은 깨닫습니다. ‘맞구나. 스승 예수님이 살아 계시구나.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러나 함께 있지 않았던 토마스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무슨 귀신 쫓나락 까먹는 소리냐고 했겠지요. 그는 자신이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8일 뒤 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전과 다름없이 문을 잠가 걸었습니다. 이제는 토마스도 함께 있습니다. 잠시 후 또다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토마스에게 그분은 자신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손가락을 넣어볼 일도 없습니다. 그분입니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은 평화의 선포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 다른 말씀이 많이 있을 텐데 그분은 평화를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그분이 선포하신 평화는 단지 걱정거리나 불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시 살아났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희망의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화는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바로 그 자체가 평화입니다. 그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불안도 넘어서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부모님이 필요해요!

전재현 베네딕토 신부 / 교구 청소년담당

콩고의 젊은 어머니들은 아기에게 기저귀를 채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업고 있을 때 아기가 몸을 떨면 ‘아, 쉬를 하려는구나.’라고 금방 알아차려서 바로 용변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기의 움직임에 엄마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말이겠지요. 콩고의 어머니들뿐 아니라 모든 어머니들은 아기가 방긋 웃으면 ‘아, 기분이 좋은 모양이구나!’하고, 보채면 ‘배가 고픈가?’하며 아기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까지 파악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 신문 좌담회에서 만났던 어느 어머니는 중학생 자녀가 밥 먹는 모습만 봐도 기쁜지 슬픈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제 마음이 푸근해져 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학교 폭력의 경우, “우리 아이(가해자든 피해자든)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심리학자인 안나 프로이드는 “인생의 다른 어떤 시기에 나타나면 신경증으로 볼 수 있을만한 특정한 행동도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것은 정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발달과정 안에서 이해되어야 할 이상행동들이 많은 단계가 바로 청소년 시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청소년기가 유아기 때보다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유아기 때 부모가 인내하며 갈아주고 먹여주고 하는 양육자의 역할을 다 했듯이, 유아기 이상으로 부모의 관심어린 양육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라는 말입니다. 아이가 몸으로 나타내는 모든 신호를 잘 알아들어야 했듯이, 청소년 시기에는 말과 행동에 담겨 있는 자녀의 기분과 생각을 파악할 줄 알아야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4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신자라면 신자답게**

먼저 인사합시다!



새로 성당에 나온 형제자매들이나 전입 온 가족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아 서먹서먹한데다가 교우들이 아는 척 해 주지 않고 반겨주지 않는 것 같아서 어렵하다고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쑥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셨고 마태오와 자캐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먼저 인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루카 6,32)하고 말씀하십니다.

주일 말씀으로 배우는 교리 : 부활 제2주일

그리스도의 평화

주국진 보나벤투라 신부 | 교구 비서실장

주일 말씀

“평화가 너희와 함께”

제1독서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살았고 서로 나눔의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두려움에 잠긴 제자들이 문을 닫아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어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없앴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힘을 주는 인사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같은 사명을 받고 있으며, 정의를 위해 일하고, 세상에 용서와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말씀과 교리

평화에 대한 도전

하느님께서서는 이 세상과 유형무형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전쟁과 테러, 각종 무기들은 하느님의 창조물들을 위협하는 것들이고, 폭력과 전쟁은 인간의 생명과 인간성을 황폐화시키는 것들입니다. 평화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평화는 단순히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느님과 하느님의 백성이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사목헌장, 78). 평화는 개인과 모든 공동체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shalom(Shalom)’은 하느님과 모든 피조물, 자기 자신과의 조화로운 삶

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평화의 임금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평화의 선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평화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며, 인간의 거룩함, 인간 생명의 존중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사목헌장, 78). 평화를 이룩하려면 각자의 야욕을 끊임없이 다스리며, 죄를 극복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사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미사의 마지막 인사로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Go in Peace)라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켜 주십니다. 성체성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와 구원의 축복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와 감사입니다. 이 찬미와 감사의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웃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체성사는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Peacemaker)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묵상해 봅시다.

- 가정과 이웃, 교회 안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는 어떤 것일까요?
-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은총과 기도

하느님께서 거저 베풀어주시는 사랑을 은총이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본성을 초월하는 은총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 이 은총을 나누어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무수한 방법으로 은총을 베푸시지만, 신자가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 것은 특히 기도와 성사를 통해서입니다.

생명의 은총

하느님의 선물인 은총에는 생명의 은총과 도움의 은총이 있습니다. 생명의 은총은 사람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은총입니다. 이 은총은 세례성사 때 처음 받게 되고, 대죄를 범하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생을 위하여 이 은총을 회복하려면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은총을 상존은총(常存恩寵)이라고도 하고 또 거룩하게 하는 은총이라 하여 의화은총(義化恩寵)이라고도 합니다.

도움의 은총

하느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은총 외에도 사람이 주님의 자녀로 사는 데 필요한 갖가지 도움을 베풀어주시는데, 이런 도우심을 도움의 은

총이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의로움을 잘 유지하고 생명의 은총을 보존하며 올바르게 생활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

기도는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여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근본이므로 모든 신자는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을 흠송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빌고, 영육에 필요한 은총을 청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베풀어주십니다.

기도하는 방법에는 기도문을 소리 내어 외는 것(구송)과 거룩한 도리에 대해 생각하는 것(묵상)이 있고, 또 하느님께서 친히 어떤 영혼을 차지하시고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 주시는 특별한 기도(관상)가 있습니다. 기도문 가운데 특히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안에는 사람이 하느님께 청할 것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미사 • 부활 제2주일

【입당성가】 129 알렐루야 노래하자
 【제1독서】 사도 4,32-35
 【화답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2독서】 1요한 5,1-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5 영원하신 성부
 【복음】 요한 20,19-31
 【영성체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
 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성체성가】 174 사랑의 신비
 【파견성가】 132 감사의 송가를



† 성유 축성 미사와 정재완, 장태식, 김상목 신부님 금경축

4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계산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대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된 성유 축성 미사 중 정재완(니콜라오), 장태식(리노), 김상목(다미아노) 신부님의 사제수품 50주년 (금경축)축하식이 열렸다.



† 예수 부활 성야 미사

4월 7일(토) 오후 10시 계산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대주교님의 주례로 예수 부활 성야 미사가 봉헌되었다.

† 예수 부활 대축일 낮 미사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4월 8일(일) 오전 10시 30분 다사성당(주임 : 문봉한 야고보 신부)을 방문하시어 예수 부활 대축일 낮 미사를 봉헌하시고, 미사 중 139명의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거행하셨다. 또한 사순시기 동안 새벽미사, 성체조배, 개인 기도를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신자들에게 강복장을 수여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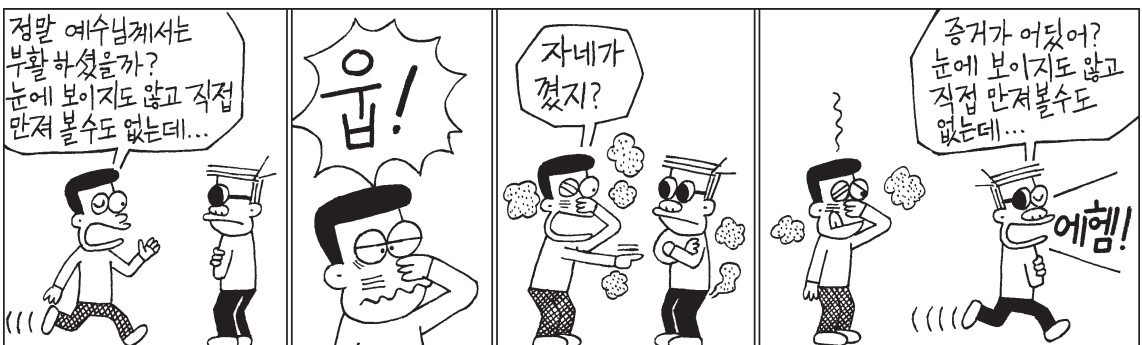
기사 및 사진제공 : 월간 <빛>

† 금주의 주요 교구일정

- ▶ 2012년 4월 16일(월)~17일(화), 본당 사무직원 성지순례 - 전주교구 성지
- ▶ 2012년 4월 22일(일) 10:30, 성심복지의원 20주년 미사, 교구장 대주교님 주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하네요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곤벤뚜알 프란치스코회 성소 모임

일시: 매월 둘째 주 일요일 14:00

장소: 대구 월배 수도원

문의: (010)5064-7467

사랑의 씨튼 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4.21(토) 16:00

장소: 하양수녀원 (대구가톨릭대 후문)

문의: (010)5705-5004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성소주일 행사

일시: 4.29 (일) 10:00~16:00

자세한 사항: <http://www.osb.or.kr>

문의: (010)8353-2323

(054)970-2000

피정

대구바뇌성모 창립 17주년 피정

일시: 4.26(목) 9:30

장소: 삼덕성당

강사: 남양성모성지 이상각 신부

지도: 김준년(베드로) 신부

문의: 임마쿨라따의집, 427-7543

마리아 영성피정 (성체현시, 미사안수)

일시: 4.18(수) 13:00~17:00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젊은이 성경 통독 (창세기-2)

일시: 4.27(금) 20:00~28(토) 13:00

장소: 수원상빈센트드벨자비의수녀회

대상: 미혼(남,여) 선착순 접수

준비물: 세면도구, 회비: 1만 원

문의: (010)8833-8107

천주섭리수녀회 생활기도 모임

일시: 4.22(일) 14:00, 성당성당

문의: (010)3940-3635

교육 / 기타

대구청소년수련원 필리핀영어연수

기간: 7.19(목)~8.18(토), 380만 원

대상: 초4~중3 (선착순: 40명)

설명회개최: 6.2(토) 15:00

문의: 656-6655(ARS 4번)

•제12회 성인해외봉사·아학연수모집중

가톨릭문화관 교육생 모집

바이올린, 초코아트, 롤페인팅, 플룻,

통기타, POP,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문의: 476-6211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안내

창작사진: 5.7(월) 10:00

서예: 5.3(목) 13:00

중급, 왕초보, 초급영어: 5.4(금)

사범자격꽃꽂이: 5.4(금) 13:00

문의 및 신청: 254-6115

에니어그램 성격유형별 영성세미나

기간: 7.28(토)~31(화)

강사: 안드레아스 에베르트(통역있음)

에니어그램『내안에접한날개』저자

대상: 에니어그램 연수를 받으신 분

문의: 예수마음배움터

(031)946-2337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4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범어성당
한티 성지 후원회 월례미사	4월 16일(월) 오전 11시	한티순교성지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4월 16일(월) 오전 11시	경산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4월 16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김천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4월 17일(화) 오전 10시	평화성당
미바회 미사	4월 21일(토) 오전 11시	성모당
평화를 위한 프란치스코 영성미사	4월 21일(토) 오후 3시	프란치스코(월배성당 뒤)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이준엽·김영섭(베드로) 외 2인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신랑각시 결혼문화원
초혼·재혼·만혼
재혼(50세이상 성사비 없음)
원장 이원교(요안나)
(053)471-0707 · 016-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서상운(안젤로)
송경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한솔도시락
대구반야월점 / 대구한의대점
☎ 963-1188 ☎ 817-3114
오영숙(마울라) 장종미(아네스)
※단체주문시 대구·경산전역 배달가능
(휴대용 카드 단말기 결제가능)
대학생MT, 체육대회, 성지순례, 성당단체
주문시 '야곱의집'에서 기념품 증정
<http://www.hsd.co.kr>

김동익 소아청소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
야간진료, 일요일 진료
북구 관음동 철국 LC 사거리 옆 (한양수정아파트 상가 1층)
(053)323-6006
<http://www.soagwa.net>
원장, 전문의: 김동익(요한)

치질·치루·항문병 수술
선일외과의원
원장·전문: 배선익(사도요한)
TEL : 745-6633~4
지하철2호선 범어역 3번 출구, 수성못방향~300m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윤영희 성형외과
Dr. Yoon's Aesthetic Clinic
의학박사/전문: 윤용현(바오로)
서울백병원/영남의대 외래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사거리 앞
T. (053)655-8686 / 8680

행사 / 모임

노동자 미사

일시: 4.20(금) 19:00
장소: 가톨릭근로자회관 강당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1

부활감사 결식아동 돕기 7080 밥 콘서트

일시: 4.21(토) 19:30
장소: 대명성당 (무료 초대)
문의: 밥밴드, (010)9577-7819

YHY 캠페인 아이디어 공모

마감: 4.30(월) 17:00 까지
대상: 만13~18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문의: 교구 청소년담당, 250-3066
•자세한 내용은 교구 청소년담당
홈페이지(www.jesusclub.or.kr) 참고
바랍니다.

교구장기 교회 및 직장테니스대회

일시: 5.27(일)~28(월)
접수마감: 4.27(금)
문의: 교구 평협, 250-3057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4.16(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카페: 대구대교구 전례꽃연구회

교육 / 모집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포상 담당관 직무 연수

일시: 5.17(목) 9:30~18:00

장소: 1대리구청 강당
대상: 청소년 관련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사제, 수도자,
주일학교 교사회장단
신청: 5.4(금)까지
문의: 교구 청소년담당, 250-3064

대구가톨릭음악원
오르간·성악 전공반 모집
문의: 가톨릭음악원, 255-4847

지성인을 위한 신앙강좌

일시: 4.28(토) 10:00~12:00
마감: 27(금), 참가비: 5천 원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주제: 인간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수 있는가?
강사: 이경수(라파엘) 신부
문의: 660-5105~6

관덕정 성지순례

1차: 4.30(월) 전주지명자산, 숲정이
2차: 6.24(일) 보령 갈매못
회비: 3만 원 (중식 포함)
문의: 254-0151 / (010)4818-3080

영남대학교병원 호스피스교육

기간: 4.26(목)~28(토)
접수: 4.20(금)까지, 교육비: 2만 원
장소: 병원 서관 3층 회의실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자
문의: 620-3873, 4673

대구대교구 어머니학교 모집

일시: 4.26~ (매주 목) 5주간

오전반: 9:30~14:00, 교구청 별관 1층 강당
오후반: 19:10~22:10, 반야월성당
회비: 10만원
문의: 2대리구청, (010)6669-9746

22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안내

일시: 6.9(토) 15:00~21:00
매주 토 (5주간)
장소: 교구청 별관1층 대화합실
대상: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모든 아버지
신청마감: 6.1(금), 신청비: 15만원
문의: 641-5678

안내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
에 대해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조경(이레네)

2012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가격: 5천 원, 616쪽
문의: 문화홍보실
250-3074, 3052

2012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
적 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광고
문안, 사회복지 관련 사업체인 경우
추가로 교구 사회복지회 국장 신부
님 추천서
광고료: 7면 13만 원, 8면 15만 원
문의: 문화홍보실, 250-3052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일반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안경원
T. 427-8070
동성로 금곡삼계탕 맞은편
안경 트렌드의 중심
원장 옥정희 (프란체스카)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허리 디스크 · 척추관 협착증
· 오십견/어깨통증 · 두통/어지럼증
· 무릎 관절통 · 스포츠손상 통증
통증의학 전문의/원장 이준석(이냐시오)
- 대구가톨릭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당신의 삶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나래정형외과
발, 발목질환수술/골다공증/스포츠의학
정형외과 전문의 원장 박성기(리노)
TBC 방송국 옆 두산오거리방면
☎ (053)241-8275

이시우 신경외과
<http://척추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2007 ISO 9001-2000 품질관리 인증업소, 그 명성과 저부심
엄선된 최상급 식재료와 올리브유, 식물성 기름만을 고집합니다.
동격높은 비지니스 모임, 격조높은 최고의 상견례 장소
자글상
대표: 정정숙(스텔라), 황기철(요한)
예약 (053)767-6700 대구수성구 황곡동 16번지 동

신대구정신과
New Daegu psychiatric clinic
불면증, 강박기 우울증, 불안, 치매
식장애(거식증, 폭식증), 비만, 스트레스
원장·전문의 김정윤(라파엘)
지하철 2호선 감삼역 2번 출구 앞
T. 053)566-0364

인공신장실
1호선 상인역 수내과
첨단혈액투석여과기 25대 / 야간투석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건현(라파엘)
☎ (053)642-7575